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홍루몽

HONG LOU MENG

조설근 고역
아의환 김광렬 역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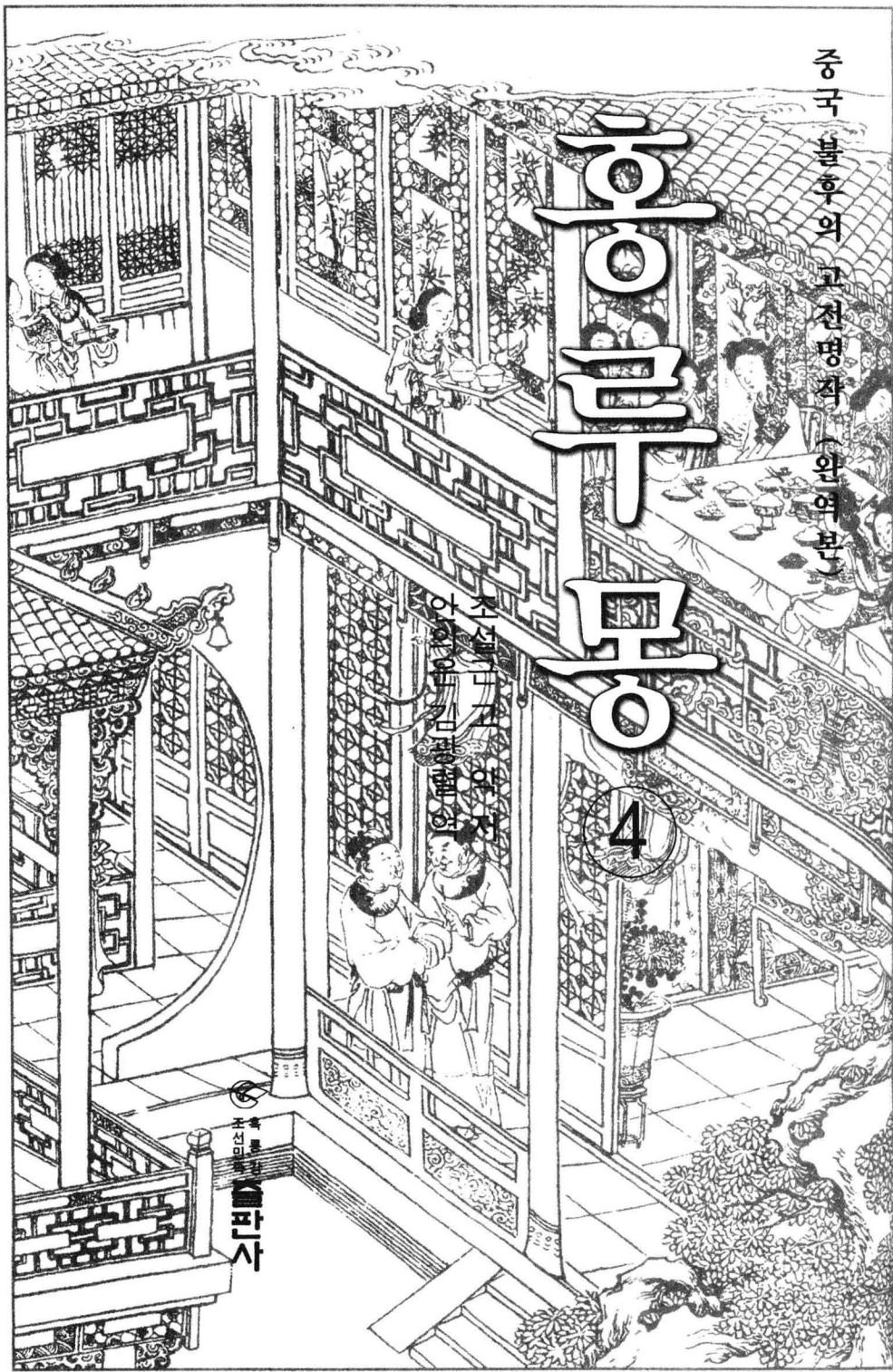
중국 불후의 고전명작 (완역본)

홍루몽

4

조성근 옮김
아주대학교 출판부

조선시대
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红楼梦. 4: 朝鲜文 / (清) 曹雪芹, (清) 高鹗著;
安义运, 金光烈译.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 4

ISBN 978-7-5389-1567-9

I. 红… II. ①曹…②高…③安…④金… III. 章回小说—
中国—清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2.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9) 第 049197 号

本书根据人民文学出版社 2000 年 5 月
第 1 版翻译出版

차 례

- 제 91회 음심에 들떠 보섬은 모진 계락을 꾸미고
의심에 겨워 보옥은 함부로 선답을 하다 /1
- 제 92회 렬녀전 이야기에 교저는 녀자의 현덕을 따지고
구슬을 구경하며 가정은 리별과 상봉을 깨닫다 /15
- 제 93회 진씨덕 노복이 가부에 찾아와 의탁을 하고
수월암에서 풍월안이 생겨 추문이 퍼지다 /34
- 제 94회 해당연회에서 대부인은 해당화를 구경하고
보옥이 통령옥을 잃어 불길한 징조를 느끼다 /51
- 제 95회 원춘귀비 세상을 뜨니 거짓소문이 정말로 되고
보옥이 미친중에 걸려 가짜가 진짜를 흐리우다 /73
- 제 96회 소식을 감추며 회봉이 계책을 꾸미고
내막이 루설되어 대옥이 실성을 하다 /91
- 제 97회 립대옥은 시고를 불살라 옛정을 끊고
설보채는 규방을 나와 대례를 치르다 /109
- 제 98회 강주선녀의 혼은 리한천으로 돌아가고
신영시자는 병들어 상사지에서 눈물짓다 /135
- 제 99회 하인배들이 결탁하여 관가의 규례를 어기고
관보를 본 이모부는 뜻밖의 소식에 놀라다 /150
- 제100회 좋은일을 방해하여 향릉이 원한을 사고
시집가는 탐춘을 생각해 보옥이 슬픔에 잠기다 /166
- 제101회 대관원에서 달밤에 유령을 만나 놀라고
산화사에서 점을 쳐 이상한 조짐을 느끼다 /181
- 제102회녕국부에서는 골육들이 병으로 앓아눕고
대관원에서는 법사를 벌리어 요귀를 쫓다 /201

- 제103회 금계는 자기가 놓은 불에 자기가 타죽고
우촌은 옛 은인을 만나 보람없이 헤어지다 /214
- 제104회 주정뱅이 금강은 행패를 부려 물의를 일으키고
어리석은 공자는 옛일을 못 잊어 고통에 모대기다 /234
- 제105회 조정의 금의군이 녕국부를 차압하고
총마사가 평안주의 관장을 탄핵하다 /251
- 제106회 왕희봉은 화단을 빚어내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대부인은 하늘에 기도를 드려 무사하기를 빌다 /266
- 제107회 대부인은 대의를 지키며 재물을 나누어주고
가정은 천은을 입어 세습직을 되돌려 받다 /281
- 제108회 억지로 기분을 내며 형무군의 생일을 축하하고
죽은이 못 잊으니 소상관에서 귀신 울음소리를 듣다 /297
- 제109회 죽은 혼을 그리다가 오아를 청문으로 잘못 보고
한생의 죄업이 끝나 영춘은 저승길을 떠나다 /316
- 제110회 사태군은 수복이 진하여 세상을 뜨고
왕희봉은 기력이 꺾이며 인심을 잃다/338
- 제111회 원앙이 순사하여 태허환경으로 돌아가고
짐승 같은 하인들이 도적을 집으로 끌어들이다 /354
- 제112회 묘옥은 전생의 업원으로 큰 변을 당하고
조씨는 죽을 죄를 입어 명토로 가다 /372
- 제113회 옛일을 참회하며 희봉은 촌로파에게 의탁을 하고
다정한 시너 원한을 풀고 도련님을 리해해준다 /392
- 제114회 왕희봉은 죽어서 금릉으로 돌아가고
진웅가는 천은을 입어 임금을 배알하다 /411
- 제115회 사념에 홀려 석춘은 평소의 뜻을 굳히고
동류를 증험하여 보옥은 지기를 잃다 /424
- 제116회 통령옥을 얻어 태허환경에서 선연을 깨닫고
어머님의 령구를 고향에 모셔 효도를 다하다 /442

- 제117회** 두 가인이 옥을 지켜 속세를 못 떠나게 하고
난봉군들이 무리를 지어 집안에서 판을 치다 /460
- 제118회** 하찮은 일에 미움을 품어 외숙은 조카를 속이고
꿈같은 소리에 처첩은 어리석은이를 타이르다 /480
- 제119회** 보옥은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인연을 끊고
가부는 황은을 입어 조상의 유업을 늘이다 /499
- 제120회** 진사은은 태허환경의 정경을 이야기하고
가우촌은 홍루몽의 이야기를 끝마치다 /523

제 91 회

음심에 들며 보섬은 모진 계락을 꾸미고
의심에 겨워 보옥은 함부로 선답을 하다

설과가 한창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있는데 창밖에
서 별안간 키드득하는 웃음소리가 나 소스라쳐 놀랐다.

(보섬이가 아니면 틀림없이 금계일것이다. 저희들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가 어디 두고봐야지.)

그런데 한참동안 귀를 강구하고 기다려보았지만 더는 아무런 동정
이 없었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술이나 과일을 입에 댈 생각은 꼬물
만큼도 없었으므로 설과는 얼른 일어나 문을 안으로 잠귀버렸다. 그
리고나서 막 옷을 벗고 자리에 들러는데 이번엔 창호지에서 바스락하
는 소리가 났다. 설과는 또 한번 흠칫 놀랐다. 그러지 않아도 보섬의
이상한 장난에 가슴이 두근거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던 그였다. 이번에도 눈여겨보았지만 역시 별다른 동정이 없었으
므로 혹시 내가 잘못 들은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옷을 도로 걸치
고 등불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과일 한개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유심히 살펴보던 그가 문득 뒤를
돌아다보니 창호지가 한군데 축축히 젖어있었다. 이거 웬 일인가 하
고 다가가 가만히 밖을 내다보려는데 별안간 밖으로부터 입김이 후-
불려들어왔다. 설과가 기급을 하며 물러서는데 밖에서는 깔깔하는 녀
자의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설과는 허둥지둥 등불을 붙여끄고 숨소리를 죽여가며 자리에 누
워버리고말았다.

“도련님, 왜 술과 안주는 드시지 않고 그냥 주무시려고 하세요?”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임자는 보섬이었다. 설과는 잠든척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또 밖에서는 원망에 젖은 목소리가 울리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도 어리숙한 사나이가 다 있을까!”

설과는 귀에 그 목소리는 보섬인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금계인것 같기도 했다. 설과는 그제야 이들의 숨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것을 알아차렸다. 밤새껏 자반뒤집기를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

그런데 날이 새자마자 어느새 웬 사람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것이였다.

“누구요?”

안에서 묻는 소리에도 밖에서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설과는 할수없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아닌 보섬이가 아닌가! 머리는 흐트러뜨린채였고 가슴은 겨우 옷자락으로 가리운 정도였으며 몸에는 금빛테를 두른 비파금조끼를 입고 그우에 연한 록색의 띠를 허술하게 둘렀다. 아래에는 치마대신 석류빛의 가랭이 좁은 잠옷을 입었고 그밑으로는 빨간 새신이 코만 빠끔히 내보이고있었다. 보섬은 아직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간밤에 두고간 그릇을 가지러 온것이였다.

이런 차림의 보섬을 보게 되자 설과는 또한번 가슴이 꿈틀했다. 그래서 설과는 일부러 웃어보이며 말을 물었다.

“아니, 어떻게 이처럼 일찍 온거야?”

보섬은 얼굴만 살짝 붉혀보일뿐 아무 대꾸도 없이 과일들을 모두 한쟁반에다 쏟아놓고는 빈 그릇만 들고 나가버렸다.

설반은 보섬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아마 간밤의 일때문에 토라진 거라고만 생각했다.

(오히려 잘됐군. 제쪽에서 화를 내여 단념해준다면 내게도 성가신 일이 덜게 될거니까.)

설과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인에게 세수물을 떠오게 해서는 세수를 했다. 그리고는 이삼일간 집에서 조용히 보내리라 마음먹었다. 첫째로는 몸과 마음을 폭 쉬여보자는것이였고 둘째로는 밖에 나가면 성가신 놈들에게 걸려들기가 싫었던것이다.

한것은 평소에 설반과 친하게 지냈던 딸거지들은 설반의 집에 남자가 없어 나어진 설과가 혼자서 집안일을 맡아보고있는것을 알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득을 좀 보려고 날치고있었다. 중간에 끼여들어 심부름이라도 하려는자가 있는가 하면 소송장을 쓸수 있고 서기관을 잘 알고있다면서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 설반이까지 껴들며 설씨댁 재산을 넘보는 놈이 있는가 하면 사실을 날조하여 공갈을 하는 놈도 있었다. 설과는 이런 무리의 사람들과는 애초부터 멀리하는 태도를 취하고있었다. 그러나 간혹 그들과 맞다들리게 되면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을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미를 거슬렀다간 어떤 불의의 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기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집안에 숨어있으면서 관부의 소식이나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금계는 간밤에 보섬이를 시켜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가서 설과의 마음을 떠보게 했던것인데 보섬이가 돌아와 이야기하는것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잘 걸려들것 같지가 않았다. 이려고보면 공연한 헛수고가 될뿐만아니라 보섬에게 멸시를 당하기가 십상이었다. 그렇다고 적당히 얼버무리서 이 일을 청산해버리자니 설과에게 대한 미련을 버릴수가 없었다. 그래서 금계는 정신을 놓고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런데 보섬이로서도 설반이가 쉽사리 풀려나올것 같지 않았으므로 달리 등을 댈 자리를 마련하고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금계에게 꼬리를 잡혀서는 안되겠으므로 겉으로는 그런 눈치를 보이지 않고있었다.

그러던것이 지금 금계쪽에서 먼저 자기를 통해 설과에게 수작을 걸고있는것이 아닌가! 보섬은 날듯이 기뻐다. 바람 부는대로 배를 몰고 가서 자기가 먼저 설과를 손안에 넣게 되면 금계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을것이기때문이었다. 그래서 여러 말로 꼬드겨본것인데 설과쪽에서도 전혀 마음에 싫어하는 눈치는 아닌것 같았다. 다만 쉽사리 손에 걸려들지 않고있을뿐으로 너무 조급히 서둘 계제가 못될뿐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설과가 불을 끄고 자리에 들어버리자 보섬은 그만 실망하고말았다. 돌아와 금계에게 보고온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금계에게 무슨 방법이 없나 두고보면서 다시 기회를 노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금계도 너무 기대에 어긋났는지 말없이 덤덤히 앉아있을뿐이었다. 금계에게도 별다른 계책이 없음을 보고 보섬은 금계와 함께 자리

에 들고말았다.

그러나 어떻게 잠들수가 있겠는가? 옆치락뒤치락하며 생각에 몰대기던 그는 한가지 계책이 머리에 떠올랐다.

(래일아침 일찌감치 일어나 그릇을 가지러 가자. 옷은 눈에 떠일만큼 색깔이 짙은것으로 입고 머리도 빗지 말고 세수도 하지 않은채 가야지. 금방 자리에서 일어난것처럼 하고 일부러 교태를 부리리라. 그리고 설과의 태도를 보아서 어저께 일때문에 성이 난것처럼 쌀쌀하게 굴어봐야지. 그래서 설과가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빛이 보이게 되면 슬슬 배를 저어 기슭에 가져다대리라. 그쯤만 되면 제따위가 내 품안에 안 드는수가 없으리라.)

그랬던건데 지금의 설과는 역시 어제밤과 다름이 없이 조금도 동해주는 기색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되고보니 거짓으로 분장을 해본다는 연기가 그만 진짜가 되어 하는수없이 과일을 담았던 접시를 집어들고는 히 물러나오고말았다. 그러나 술주전자만은 다음에 또 낚시를 던져볼 기회를 얻기 위해 일부러 남겨두었다.

금계는 엿저녁에 벌써 보섬에게 물었었다.

“네가 음식을 가지고 갔을적에 아무도 눈치를 챈 사람은 없었니?”

“없었어요.”

“도련님은 아무 말도 없으시던?”

“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금계는 온밤 머리를 짜가며 생각해보았지만 별로 뽕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 대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일을 해내려면 다른 사람은 속여낼수 있다 하더라도 저 보섬이만은 속일수 없지 않겠는가! 그럴바엔 보섬이한테도 한몫 나누어주자. 그런다면 자연 말을 내지 않게 될것이다. 하물며 나는 몸소 나설 형편이 못되는거니까 이 녀자가 나의 수족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러니 차라리 이 애와 터놓고 이야기하는편이 나을것이다.)

이렇게 작정을 한 금계는 웃으며 보섬에게 말을 걸었다.

“애, 내가 보기에 도련님의 사람됨이 어떻더냐?”

“한마디로 말해서 갈데없는 바보예요.”

금계는 깔깔 웃으며 한마디 던졌다.

“아니, 네가 어쩌면 그 도련님을 내리썩고있는거니?”

그러자 보섬이도 마주 웃으며 대꾸했다.

“글쎄 그 도련님은 아씨님의 호의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보지 뭐예요.”

“그분이 어쩌서 나의 호의를 무시했다는거야?”

“아씨께서 모처럼 음식을 보내주셨는데도 손 하나 대지 않고있으니 그게 아씨의 호의를 무시하는게 아니고 뭐예요?”

보섬은 금계를 슬쩍 결눈질해보며 웃었다.

“너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 내가 그분께 음식을 보내드린건 그이가 서방님 일때문에 수고가 많으셨기때문에 인사를 차린것뿐인데. 다만 남들이 보게 되면 달리 생각할가봐 너한테만 묻는거야. 그런데 네가 하는 소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구나.”

“아씨님, 녀려하실것 없어요. 제가 아씨님을 따르고있는 이상 다른 마음을 먹고있을리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은 아주 조심을 해서 해야지 한번 남의 입에 오르고보면 큰일이란 말씀이에요.”

금계의 얼굴은 금시 빨갱게 물들었다.

“요년 좀 보지, 몸썩 계집애 같으니! 내가 보기로는 네가 그 남자에게 반한것 같구나. 그래가지고는 도리어 나를 미끼로 쓰려구... 안 그래?”

“그건 아씨께서 생각하시기 나름이지만 전 아씨를 생각해서 애를 태우고있단 말씀이에요. 아씨께서 정말 도련님한테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좋은 피가 하나 있어요. 아씨께서도 생각 좀 해보세요. 세상에 기름을 훔쳐먹지 않는 쥐가 있던가요? 그 도련님도 남의 눈을 꺼리여서 그렇지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은건 아녜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말이에요, 아씨께선 너무 조급히 굴지 마시고 도련님께 대한 접대만 극진하게 해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시숙별이 되는데다 아직 장가도 안든 홀몸인것만큼 아씨께서 친절을 좀 베풀어드린다 해도 남들은 할 말이 없는거예요. 그렇게 며칠쯤 지나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아씨님의 친절에 감격하여 직접 인사를 드리러 찾아오실거예요. 그때에 아씨님은 우리 방에다 따로 술상을 차려서 대접을 하시란 말이에요. 저도 옆에서 아씨님을 도와 도련님을 곤드레만드레 취하게 해놓을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 아무리 날고뛰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내뺄수가 없을거예요. 또 설사 그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해도 그때는 우리쪽에서 먼저 걸고든단 말이에요. 그자가 아씨님을 희롱하려들었다고 말이에요. 그쯤되면 자기도 겁을 먹고 고분고분 우리의 손에 들게 될거예요. 그래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도 허사로 무안만 당하는 꼴도 면하게 되구요. 어때요, 아씨님 생각엔?”

금계의 얼굴은 또다시 발갛게 물들었다.

“아이, 이년 좀 보아! 너 정말 사내를 수태 후려내보았구나! 그러기에 서방님이 집에 계실적에두 네 곁을 못 떠났던거구.”

금계의 말에 보섬은 입을 비죽해보이며 웃었다.

“아이, 이런 법이 어데 있어요? 남은 아씨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애를 쓰고있는데 아씨님은 도리어 그런 말썽을 하시다니...”

그뒤부터 금계는 일심으로 설과를 유혹할 생각에 골몰했다. 그러다보니 판 일에 마음을 쓰거나 트집을 잡는 일은 없어져 집안은 전에 없이 조용해졌다.

그날 보섬은 또 설과의 방으로 가서 술주전자를 가져왔지만 언제 그랬더니싶게 얹전하고 점잖았다. 그런 태도를 결눈질해 본 설과는 속으로 은근히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었다.

(혹시 내가 그들을 잘못 보고 오해한것인지도 몰라.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호의를 저버린것으로 되니 여간만 미안한 일이 아니다. 다음날 나에게 그 분풀이를 해오게 되면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은가!)

그럭저럭 이삼일이 지났지만 더 별다른 말썽이 없었다.

설과가 이따금 보섬과 마주치게 되면 보섬은 고개를 다소곳이 하고는 자기쪽에서 피해갔다. 눈길 한번 주는 일이 없었다. 금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설과로서는 여간 미안하지가 않았다.

설부인과 보채는 금계가 며칠째 말썽을 부리는 일이 없이 얹전하고 친절해진것을 보고는 다들 희한하게 여겼다. 누구보다도 설부인이 제일 기뻐했다.

(설반이가 저 애를 맞아들일적엔 아마도 무슨 액운이 들었던가 봐. 그래서 저 애가 몇년 동안 사나워졌던게지. 이번에도 이런 일이

생기기는 했지만 집에 돈이 넉넉한데다 가부에서 힘을 써준 덕분에 구원받을 희망이 있게 된거고. 게다가 며느리까지 갑자기 암전해진것을 보면 설부인에게 행운이 찾아든것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수록 여간만 신통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날 식사를 마친 설부인은 시녀 동귀의 부축을 받으며 금계의 방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뜨락안으로 들어서노라니 금계의 방에서 웬 사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것이였다.

동귀가 얼핏 눈치를 차리고 일부러 큰소리로 말을 했다.

“마님, 로마님께서 오셨나보죠?”

그러며 그들이 문앞에 이르러니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언뜻 문뒤로 숨어드는것이였다.

깜짝 놀란 설부인은 두어걸음 물러서는데 금계가 급히 마중을 나왔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외간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저의 친정집에 양자로 들어와있는 사촌동생이에요. 시골서만 살아왔기때문에 펴 낯을 가린답니다. 어머님을 뵈은적이 없지만 조금전에 왔기때문에 미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네게 동생벌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상면을 해도 무방하겠구나.”

금계가 동생을 불러내어 인사를 드리라고 하자 그 사나이는 나와 설부인에게 읊을 하고 안부를 물었다. 설부인도 답례를 하고나서 의자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 서울엔 언제 올라오셨소?”

설부인의 물음에 하삼이란 그 사나이는 별로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대답을 했다.

“실은 지난달에 어머님께서 집안일을 감독할 사람이 없어서 저를 양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전 그저께 상경을 했는데 오늘은 누님을 만나뵈러 이렇게 찾아온겁니다.”

설부인은 그 사내가 어쩐지 건방져보였으므로 잠간 더 앉았다가 곧 일어서고말았다.

“그럼 천천히 이야기나 하며 놀다가슈.”

그리고는 금계를 돌아다보았다.

“아우님이 처음 오신테이니까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시도록 해



라.”

“네.”

금계의 대답을 듣고 설부인은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자 금계는 하삼을 보고 말했다.

“자 이제 마음놓고 앉아요. 오늘부터는 내놓고 출입을 해도 괜찮게 됐으니 작은도련님의 감독을 안 받아도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 대신 물건을 좀 사다줘야겠어요. 그렇지만 남들의 눈에 띄어선 안돼요.”

“그런건 내게다 맡겨주세요. 돈만 있다면 뭐든지 원하시는대로 사다드릴테니요.”

“너무 큰소리만 치지 말아요. 나를 속이고 가짜를 사다 맡겼다면 내가 가만 두질 않을테니.”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며 한동안 시시덕거리다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나서 금계가 사달라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의를 주자 하삼은 일단 돌아갔다.

그뒤부터 하삼은 자유로이 금계의 방으로 드나들었다. 늙은 문지기도 금계의 사촌동생으로만 알고 별로 안에다 아뢰지도 않았다. 이때부터 수없이 많은 풍파가 생기었지만 그것은 뒤날의 이야기다.

그러던 어느날 설반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설부인은 곧 보채더러 읽어보게 했다. 편지의 사연인즉 이런것이였다.

자식이 비록 옥중에 있는 몸이오나 별로 고생은 하지 않고 있사오니 어머님께선 부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저께 현청에 있는 서기의 말에 의하면 부청에서 이미 청원서를 접수했다는겁니다. 아마 우리의 노력이 은을 낸 모양입니다. 그러나 부에서 올려보낸 문서를 도에서는 부결했답니다. 그래서 현청의 서기관이 즉시로 회문(回文)을 작성해 올려보냈지만 이번엔 도에서 부의 지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셨다는군요. 지금 도청에서는 이 사건을 직접 취급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만 되면 또 큰변을 당하게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에까지는 아직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았을거니까요. 그러니 어머님, 아무쪼록 이 편지를 받아보시는 즉시로 도의 도대님께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동생 설과도 급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제가 도청으로 이감될지 모르는 형편

이니까요. 돈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지급으로 시급히 보내주셔야 합니다.

설부인은 듣고나서 또 한바탕 울음을 터뜨렸다. 보채와 설과는 설부인을 위안하며 뒤일을 서둘렀다.

“어머니 자중하세요. 그리구 이 일은 이렇게 어물거리고있을 형편이 못돼요.”

설부인은 하는수없이 또 설과를 현지로 보내야 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시켜 행장을 꾸리게 하는 한편 돈을 마련하고 점포에 있는 점원 한 사람을 딸리여 밤도와 길을 떠나게 했다. 보채도 그 준비를 거들어주었다. 하인들이 분부대로 실수없이 해낼것이지만 조급히 서둘다가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있게 될가봐 걱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정이 훨씬 지난 뒤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보채는 결국 그때문에 몸져눕고말았다. 워낙 귀하게 자란 몸인데다 오빠때문에 심려를 하고 온밤을 새워가며 바빠 보내고나니 이튿날부터는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 앵아는 깜짝 놀라 설부인에게 알리었다. 설부인이 달려와보니 보채는 열이 올라 얼굴이 발갛게 달아있고 온몸은 불덩이같이 뜨거웠으며 묻는 말에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팔다리가 떨리도록 황급해진 설부인은 보채를 붙들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보금이 옆에서 설부인을 부축하며 위로를 했다. 그것을 본 추릉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했고 보채를 부르기만 했다.

그렇건만 보채는 말 한마디 못했고 손발 하나 꼼짝하지 못했다. 열을 띤 눈은 바짝 말라있었고 막힌 코는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급히 사람을 띄워 의원을 불러다 약을 썼더니 그제야 얼마간 정신을 차리므로 식구들은 조금 마음을 놓을수 있었다.

영국부와 녕국부에서도 소식을 듣고는 모두 놀라와했다. 희봉이가 먼저 “십향반혼단(十香反魂丹)”을 보내오는가 하면 왕부인이 또 “보단(寶丹)”을 보내왔으며 대부인과 형부인 그리고 왕부인으로부터 각각 시녀를 보내여 문병을 했다. 다만 보옥이한테만은 이 일을 알리지 않고있었다.

그런데 칠팔일 동안이나 계속 치료를 해보았지만 별로 효험이 나

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역시 보채 자신이 “랭향환(冷香丸)”을 생각해 내어 그것을 세알 먹었더니 그제야 병이 나아졌다.

후에 보옥이도 그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이미 병이 다 나은 뒤였으므로 새삼스레 위문을 가기가 안되어 그만두었다.

그렇즈음 설과로부터 편지가 왔다. 설부인은 보채에게 걱정을 끼치기가 안되어 혼자서만 읽어보고는 곧 왕부인을 찾아와 설반에 관한 일을 부탁하고 겸하여 보채가 앓고있는 소식도 전하였다.

설부인이 돌아가자 왕부인은 곧 그 사실을 가정에게 알리었다.

“글쎄, 이 일은 옷사람들한테 부탁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 그러니 단단히 잡도리를 하지 않고는 안될거야.”

가정의 이러한 말을 듣고 왕부인은 보채에 관한 일까지 이야기했다.

“이 애도 제 오빠의 일때문에 무척 애를 태우고있나봐요. 아무래도 우리 집 식구가 될 사람인데 빨리 혼례를 올려서 데려오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러다가 공연히 몸이라도 상하게 되면 랑패가 아니겠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없는건 아니야. 다만 저쪽 댁에서 지금 그런 사정에 말려들어 정신없이 보내고있는터이고 또 이젠 년말도 멀지 않은터이니 집집마다 일거리들이 많을거란 말이야. 그러니 세전으로 약속이나 해두었다가 래년 봄에 혼례를 하도록 하자구. 할머니의 생신날이 지나야 혼사날을 정할수 있는거니까. 그럼 당신이 이런 뜻으로 보채에미한테 미리 말해두구려.”

“네.”

다음날 왕부인이 설부인에게 가정의 뜻을 전하자 설부인도 동감을 표시했다.

식사를 끝내고나자 왕부인은 설부인과 함께 대부인의 방으로 건너갔다. 다들 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대부인이 먼저 말을 물었다.

“보채에민 방금 건너오는 길인가?”

“아네요. 어저께 건너왔지만 밤이 늦었기로 찾아와 뵙지 못했어요.”

설부인이 대답을 하고나자 왕부인이 또 간밤에 가정이 하던 말을

되풀이했다.

대부인은 듣고나서 매우 만족한 얼굴이었다.

이때 보옥이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대부인은 보옥을 돌아다보며 물었다.

“밥은 먹고 오는 길이나?”

“지금 학숙에서 오는 길이에요. 밥을 먹고나서 또 학숙엘 나가야 해요. 그래서 먼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또 이모님께서 여기 와계신다고로 겸해서 인사를 드리려구요. 그런데 보채누난 몸이 좋아졌나요?”

“아무렴, 이젠 다 낫구말구.”

그런데 방안에 있던 사람들은 보옥이가 들어서는 바람에 하던 이야기를 갑자기 중단무이했던터이라 보옥의 눈에는 설부인까지도 이전 같이 친절한 표정이 아닌것 같았다.

(물론 지금 형편에서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있을 계제는 못되겠지만 만 그렇다고 말조차 하기 싫어할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옥은 학숙으로 갔다.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보옥은 여러 어른들께 인사를 하고나서 곧 소상관으로 건너갔다. 문발을 걷고 안으로 들어서니 자견이 마중을 나왔다. 그런데 방에 대옥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보옥은 자견에게 물었다.

“대옥아가썬?”

“로마님방에 가셨어요. 숙모님께서 오셨다는 기별을 듣고 인사를 드리러 가셨어요. 도련님은 거기서 오시는 길이 아니세요?”

“나도 들려서 오는 길이야. 그런데 대옥아가썬 안 보이던데?”

“아니 우리 아가씨가 거기에 안 계셨어요?”

“안 보였어. 그럼 어딜 가신걸가?”

“글쎄요.”

보옥이 되돌아나가려는데 마침 대옥이가 설안을 앞세우고 돌아왔다.

“아, 대옥누이로군!”

보옥은 반기면서 대옥의 뒤를 따랐다.

대옥은 곧추 안방으로 들어가 보옥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는